
2015년 필리핀 진출전략

2015. 3

kotra
마닐라 무역관

목 차

I.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3
1. 필리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3
II. 2015년 주요이슈 및 트렌드	4
1. 2015년 필리핀 주요이슈 및 트렌드	4
III. 필리핀 시장 진출전략	5
1. 중장기 진출전략	5
2. 세부 추진전략	6
[별첨]	8
가. 필리핀 경제동향	8
나. 우리나라 진출현황	10
다. 2015년 마닐라 무역관 추진사업 계획	13

필리핀은 아세안경제통합(AEC)의 출범을 앞두고 동남아 지역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필리핀 인근 상대국 보다 낮은 임금, 아세안경제통합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혜택(역내 관세철폐)을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여 투자 각광 받고 있음.

① 동남아의 허브국가 달성위해 필리핀 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

- 2014년 10월 말 기준,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20.6억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32억 달러)대비 35.4% 감소하였으나,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킬 계획
- 2015년 연말을 목표로 추진되는 아세안경제통합의 출범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혜택인 연내 관세철폐 및 투자 인센티브(법인세 면제, 관·부과세 면제, 영세율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1위 산업은 제조업으로 12억 4천만 달러로 60%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동산 투자가 2억 5천만 달러(12.5%)로 2위를 차지(2014년 10월 말 기준)

②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재수출용 산업의 투자에 집중

- 반도체, 부품, 자동차의 조립라인 공장 등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완제품을 만들어 다른 나라로 역수출하는 구조로 필리핀 수출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음.
- 전기·전자 산업은 필리핀 제조업의 핵심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으며 1,000여개 기업이 40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수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필리핀의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은 2.5억 달러(2014년 11월 기준)로 전년동기 대비 27% 늘어남.
- 또한 일본 자동차 회사들(미쓰비시, 토요타 등)의 자동차 조립라인 공장을 인수, 건설, 증설하는 등 현지 제조공장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미쓰비시: 2012년 Ford 필리핀 제조라인 폐쇄, 2014년 4월 미쓰비시가 인수(PhilStar/ 2014.04.01.)

* 토요타: 1,126만 달러(5억 페소) 자동차 공장 증설투자 계획 (Inquirer.net/2015.01.08.)

2015년에는 필리핀에서 APEC 회의가 개최되고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는 시기로 열악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의 투자유치 등으로 소비자 신뢰지수 세계 2위 기록

① 필리핀, 2015년 APEC 개최

- 필리핀 정부는 2015년 APEC이 개최됨에 따라 개최후보 장소의 숙박시설, 보안, 물류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며 경제발전을 목표
- 4가지 안건은 지역 경제 통합,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촉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구축

② 아세안경제공동체(AEC), 2015년 12월 출범 예정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라 인구 6억명, GDP 2조 4천억 달러의 대규모 단일 경제권 탄생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역내 관세철폐,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회원국간 수출입 제도를 개선하여 진출 문턱이 낮아지며 회원국간 교역량 증가 및 회원국을 통한 비 아세안 경제권으로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AFAS(ASEAN Framework Agreement Service)에 따라 12개 서비스 분야가 자유화 될 예정
- * 12개 서비스 분야: 비즈니스, 통신, 건설 및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여행, 오락, 문화/스포츠, 운송

③ 필리핀 소비자 신뢰지수 세계 2위로 소비시장 활성화 기대

- 필리핀 소비자 신뢰지수가 2014년 4분기에 120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함에 따라, 2015년에도 필리핀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함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이 조사는 조사기관 Nielsen이 필리핀 500명을 포함하여 세계 60개국 3만명으로부터 이메일로 회신받아 분석한 결과로 인도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함께 2위 차지
- 해외근로자(OFW)의 송금 증가로 가계 소비 강세 유지
- * 2014년 10월 기준, 198억 달러로 전년동기(187억 달러) 대비 6.16% 증가
-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서비스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2016년 고용창출 130만명, 250억 달러 시장으로 확대되어 필리핀 경제를 이끌 것으로 기대

1. 중장기 진출전략

목 표

**양국간 교역 2016년 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
중국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여 아세안 진출 교두보 구축**

추진 전략

- ① 1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 공략
- ② 이슈 모니터링을 통한 신시장 발굴
- ③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양국간 협력활동 지원
- ④ 인프라 관련 지원활동 강화

추진 방향

① 내수공략

- ❑ 대형 유통망 및 신규 유통망(홈쇼핑) 활용
- ❑ 프랜차이즈 진출 지원을 통한 한류시장 개척

② 신시장 발굴

- ❑ 경제 및 통상 이슈 관련 시장 개척
- ※ 한국차 부품(FTA), 방송장비(디지털방송)
전기차 관련 제품(E-Trike 프로젝트) 등

③ 양국간 협력
사업 추진

- ❑ 한-필 산업 협력을 위한 투자사절단
- ❑ 한국기업 CSR 지원을 통한 한-필 협력 강화

④ 인프라 시장
공략

- ❑ ADB Financed 프로젝트 관련 선도역할 추진
- ❑ 프로젝트 정보 고도화를 통한 수주 지원
- ❑ 전력기자재 시장 개척 집중지원

2. 세부 추진전략

1) 상품교역

□ 내수 공략

- 내수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대기업 공략” 강화
 - (단기) 서울식품전, GBP 등에 필리핀 메이저 유통기업 유치
 - * SM Supermarket, SM Savemore, Rustans Supercenter, Wellcome Supermarket 등
 - (중장기) 신규진출한 CJ Oshopping과 협력사업 개발
 - * CJ Oshopping, ABS-CBN방송사와 2013년 사업개시, 現사업초기로 공동사업 추진에 무리
 - * CJ측과 중장기 프로젝트로 “한국 중소기업 우수 소비재 특별방송” 추진 필요
- 고관세로 한국산 시장형성 미미한 AK FTA 수혜품목 시장창출
 - 현대차 공식딜러(HARD)와 협업, 한국자동차 관련제품 Fair 공동개최 추진
 - * 자동차부품, 現 20% → 2016년 5%로 관세인하 예정

□ 신시장 발굴

- 현지 이슈 모니터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
 - (디지털방송) 필리핀 2015년부터 디지털전환, 관련제품 공략
 - * 2011년 디지털방송 관련 사업 개최, 후속사업 추진을 통한 시장개척 추진
 - (전기차) E-Trike(전기삼륜차) 프로젝트 본격 추진에 따른 관련시장 개척
 - * 충전소 등 인프라 시장 형성 기대

2) 투자진출/투자유치

□ 내수공략 서비스 진출

- 지속되는 **한류를 활용**,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지원
 - 한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현지 주요기업의 관심이 증가
 - 한국 브랜드 진출 지원을 통한 한국제품 선호·인지도 확대 필요
 - * 본촌치킨 성공이후 교촌치킨 등 한국 브랜드 현지진출 가속화

□ 정상외교 성과 활용, 양국간 협력사업 추진

- 경제통상협력 후속 조치로 한-필 경제협력 포럼 개최
 - 신규 투자진출 지원 및 기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추진

□ CSR을 통한 한-필 협력 강화

- 기진출 기업 및 신규진출 희망기업의 현지 CSR활동 지원
 - 태풍 하이엔 재건지원을 위한 진출기업(기관) 공동 CSR 발굴
 - 진출 희망기업 CSR(기부 등) 지원을 통한 신규진출 지원

3) 건설·플랜트

□ ADB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 ADB(아시아개발은행) 본부 소재지 활용, ADB 프로젝트 선도 무역관 역할 강화
 - 아시아 지역 무역관 대상 관련 프로젝트 정보제공 및 공동사업 추진

□ 필리핀 인프라프로젝트 MAP 구축

- 교통(철도, 항만, 공항, 도로) 및 에너지(전력, 신재생) 등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정보 고도화를 통한 수주지원
 - 프로젝트 MAP 업그레이드를 통한 프로젝트 정보원 역할 충실 수행
 - * 2013년 무역관 자체 사업으로 프로젝트 MAP 구축(약 50개 프로젝트)

□ 전력관련 수요 발굴

- 재해복구 및 발전시설 확충 수요 공략을 위한 전력기자재 프로젝트 수주 및 기자재 조달 수요 개척
 - 2013년 한전의 납품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전시관 설치를 계기로 “전력기자재 로드쇼” 2년 연속 공동개최 추진
 - 한전과 공동으로 1차년도 로드쇼 참가기업 대상 지사화 서비스 제공

【별첨】

가. 필리핀 경제동향

(1)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 **(고성장)** 2013년 7.2%의 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 최고치 달성
 - 정부지출 확대 및 민간소비 증가, 건설·부동산·금융부문 호조
 - 2014년 경제성장률 6%대 관측, 성장세 유지 전망
 - * 필 정부(6.0-7.0%), ADB(6.1%), EIU(6.9%), WB(6.8%) 등 주요기관 전망 낙관
- **(교역 활성화)** 총 대외교역 규모 1,157억 달러로 증가,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하며 무역관계 활성화 기대
 - 1,088억 달러('11) → 1,138억 달러('12) → 1,157억 달러('13)로 교역액 3년 연속 증가
 -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축소되며 교역환경 개선 전망
 - * 무역수지 적자 : -122억 달러('11) → -97억 달러('12) → -77억 달러('13)
- **(투자등급 상향)** 2013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 피치)로부터 투자적격등급 획득, 성장 지속성 확보
 - 높은 성장률, 거시경제 건전성, 정부 재정운영 개혁의 성공적 대외평가로 투자등급 격상되며 외자유치 활성화 기대

(2) 산업 동향 및 주요 산업정책

- **(자동차)** 1억 인구대비 차량 보유율은 7.5%에 머무르고 있어 성장 잠재력 높으며, 국산차량의 FTA 관세인하 수혜 기대
 - 2014년 신규 차량판매는 234,747대로 전년대비 약 29.3% 증가, 일본차 우세(77.6%) 속에 현대·기아차 선전(시장점유율 3위, 10.6%)
 - 한-아세안 FTA 체결 영향으로 국산차·부품 세율이 2016년까지 현재의 3-20%에서 5% 미만으로 인하될 예정, 한국제품 선호도 증가 기대
- **(BPO)** 콜센터, 서비스센터를 비롯한 비즈니스 아웃소싱 산업은 90년대 기반형성 이래 2010년 산업규모 91억 달러(GDP의 5%), 고용 53만 명으로 세계 1위국 부상
 - 연간 20%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외투기업 인센티브 제공, BPO 산업단지 구축 지원, 교육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산업발전 지원정책 추진 중

(3) 경쟁국/글로벌기업 진출전략 및 현황

- 일본 기업은 동남아 생산거점의 일환으로 필리핀 지역 진출 지속
 - 특히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기업은 아세안 역내 서플라이체인을 활용, 필리핀 내수시장 장악
 - *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완성차 업체, 가와사키 등 모터사이클업체 조립공장 운영, 태국 등 인근국으로부터 생산 및 AS용 부품조달
- 미국은 필리핀과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필리핀 1대 수입국임
 - 특히 발전분야, 프랜차이즈, 생활소비재,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서 두각
 - 최근에는 호텔 리조트 등 레저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 진행
 - * 대표기업 AES(발전), Ford(자동차), TI(반도체) 등, 버진아일랜드 경유 관광산업 투자
- 필리핀 경제는 복건성 출신 화교가 장악, 모국인 중국과 거래를 선호, 필리핀 2대 수입국임.

나. 우리나라 진출현황

(1) 수출입 동향

- **(총괄)** 2014년 양국 교역액은 133.8억 달러를 기록, 수출 100.4억 달러(+14.40%), 수입 33.3억 달러(-10.1%)로 무역수지 67.1억 달러 흑자 실현
 - 전체 교역량은 전년대비 7.1% 증가, 필리핀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수출 13위(△2), 수입 28위(-)를 차지
- **(수출)** 반도체, 석유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주력품목인 자동차 수출 부진
 - **(호조품목)** 직접회로 반도체(+35.3%), 경유(+98.1%) 수출 증가
 - * 반도체: 필 경제성장 및 제조업 활성화로 주력품목인 반도체부품 수요증가, 모바일 기기 수요확대에 따른 메모리 및 상승에 기인
 - * 경유: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산업이 성장함(필리핀 정부 투자금 % 증가)에 따라 건설 중장비등의 사용으로 경유 수요 증가
 - **(부진품목)** 자동차(-16.7%), 합성수지(-17%) 수출 감소
 - * 자동차: 승용차의 지속적인 판매량 감소(2.2억불→1.9억불, -16.7%)
 - * '13년 건설경기 호조로 화물자동차의 수출 급증 (1.3억 달러, +53.8%)으로 인해, '14년도 화물자동차 수출 (1억 달러, -25.2%)은 전년대비 감소

<한국의 對필리핀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2013		20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8,783	7.0	10,047	14.4
1	반도체	2,273	34.3	3,088	35.8
	(집적회로반도체)	2,235	35.6	3,024	35.3
2	석유제품	1,877	(1.3)	2,738	45.8
	(경유)	749	(23.4)	1,484	98.1
	(휘발유)	926	24.0	1,020	10.0
3	동제품	271	17.5	321	18.3
4	자동차	367	(4.1)	305	(16.7)
	(승용차)	216	(21.5)	192	(11.0)
	(화물자동차)	135	53.8	101	(25.2)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27	165.1	250	9.8
6	철강판	239	16.0	222	(7.4)
7	수동부품(축전기)	148	(14.1)	170	14.4
8	편직물	135	7.1	146	8.2
9	합성수지	157	12.3	130	(17.0)
10	광학기기	110	2.3	119	21.4

자료: 무역협회(MTI 3단위)

○ (수입) 곡식류, 기호식품, 각종 부품, 중전기기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 감소

- 과일류 및 기호식품 등의 상품 수입이 국내 소비수요 증가로 확대

* 과일류: 바나나(3억달러, 23.6%)로 수입 과일 소비증가 / * 기호식품: 제조담배(0.7억달러, 73.7%)로 수입 급증

- 기구부품, 기타 중전기기 등 산업부품, 중간재 수입 증가

* 각종 부품, 중전기기: 중전기기부품(0.8억달러, 77.9%), 인쇄회로(0.47억달러, 16.7%), 연결부품(0.45억달러, 217.7%)

〈한국의 對필리핀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3		20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705	12.9	3,333	(10.1)
1	반도체	988	12.3	828	(16.2)
2	곡식류(과실류)	319	3.6	384	20.3
3	원유	476	(14.8)	370	(22.4)
4	동제품(동괴 및 스크랩)	447	92.5	273	(38.9)
5	수동부품(축전기)	196	22.6	152	(22.3)
6	기호식품(제조담배)	91	(13.9)	106	16.9
7	동광	118	41.8	104	(11.3)
8	기구부품(인쇄회로, 연결부품)	67	10.1	104	55.4
9	기타중전기기	49	95.8	88	77.9
10	컴퓨터(보조기억장치)	88	29.5	68	(17.5)

자료: 무역협회 (MTI 3단계)

(2) 투자진출/투자유치 현황

○ (일반현황) 2014년 3분기 기준,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전체 투자국 중 신규 법인수 40개사, 투자액 82백만 달러로, 투자액 기준 27위 기록

* 우리나라의 대외투자 중 필리핀 순위(총 115개국)

** 투자액 기준 : 30위('09)→19위('10)→22위('11)→8위('12)→21위('13)→**27위('14)**

○ (진출현황) 한국기업으로는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LG전자,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필리핀 100대 기업리스트에 일부 기업들이 포함

* 100대기업 포함 한국법인(순위, 매출액) : 한진중공업(33, 8.1억불), 삼성전자 생산(37, 7.5억불), 삼성전자 판매(56, 5.9억불), 삼성전기(69, 4.9억불), 롯데레시(85, 4.3억불)

주요 한국 투자기업 리스트

회사명	모기업	업종	제품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시기
대덕필리핀	대덕GDS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1,000명	1996
삼성전자	삼성전자	유통업	가전기기	외투법인	약 200명	1996
삼성전기	삼성전기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3,000명	1997
선진필리핀	선진	제조업	동물사료	외투법인	약 70명	1997
대림필리핀	대림	건설업	건설	현지법인	약 100명	-
포스코	포스틸	제조업	철강제품	외투법인	약 200명	2008
외환은행	외환은행	금융업	금융	외투법인	약 20명	1981
한국전력	한국전력	발전업	발전	외투법인	약 300명	199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조선업	조선	외투법인	약 2만명	2006
한화마닐라	한화	무역업	무역	외투법인	약 10명	1983
CJ GLS	CJ GLS	물류업	물류	외투법인	약 100명	2006

자료: 무역관 자체조사

(3) 성공/실패사례

- 필리핀으로의 투자진출 시 우리기업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엄격한 지분제한으로, 해당 투자법의 상세 내용과 실제 투자진출 실패사례 소개
- **(개요)** 필리핀은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에 있어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투자가 제한된 예외 분야를 법으로 명시
 - 제한 분야는 공화국법 제 7042호,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 행정명령 제 858호에서 Negative List로 명시하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최대 40%까지만 외국인 지분투자를 허용**

[Negative List]

List A	0% : 소매, 법률, 회계, 건축설계, 의료 등 전문서비스 20% : 라디오통신 25% : 국내외 인력지원 사업, 국방 관련 건설사업 등 30% : 광고서비스 40% : 일반건설, 사회인프라, 교육기관 운영 등 49% : 대출업 60% : 기업감독 및 관리위원회(SEC) 규제 받는 금융기관
List B	국방, 안보, 국민위생, 중소기업 위한 외국지분 제한분야

- **(문제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지분이 40%로 제한됨에 따라 외국기업 입장에서 투자매력도 저하

☞ **(사례)** 필리핀의 저렴한 인건비와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매력을 느낀 A사는 사업 진출 검토 중 자사업종이 외국인 지분 40% 이하로 제한된다는 정보를 습득,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입장에서 동 규제로 인해 경영권 보호가 취약해짐을 우려하여 투자의사 철회

- 투자지분 제한을 감수하고 진출하더라도 사업운영을 위해 현지인 지분을 최소 60%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로 인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사업리스크 과다

☞ **(사례)** 마닐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현지인을 등기 이사로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필리핀 현지인들이 서류상 지분을 근거로 사업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에 봉착

다. 2015년 마닐라 무역관 추진사업 계획(잠정)

□ 『한류 Fair 개최』를 통한 한류상품 진출기반 확대 및 신규수출 촉진

- 문화원, 한인회, OKTA 개최 각종 한류사업을 통합 추진
- KOTRA 주도로 기진출 한류브랜드, 신규진출 한류브랜드, 현지 방송 등을 활용한 종합 한류축제 개최를 통해 개최효과 극대화
 - * 총 100개사, 연인원 5천명 참가 (기진출 30개, 홈쇼핑 납품 20개, 신규 50개사)
 - * 기진출 한식 프랜차이즈 : 한식 요리강좌 및 콘테스트 -> 인지도 확대, 매출 확대
 - * 홈쇼핑 : 한류 Fair 주간 특별방송 및 오프라인 제품 전시판매
 - * 신규진출 희망 기업 : 프로젝트 프리 런칭쇼를 통한 현지 파트너 발굴

□ 무역사절단 및 로드쇼 개최

- 지자체 무역사절단 및 특정 타깃시장 공략 로드쇼 개최
 - * 경북(6월) 대구(7월), 충북(9월)

* 자료관련 문의

구분	담당자	Tel	Email
마닐라 무역관	강다길	63-2-893-3244	dagil.kang@kotra.or.kr
본사 신흥시장팀	안유석	02-3460-7312	sean-ahn@kotra.or.kr